



海女 市場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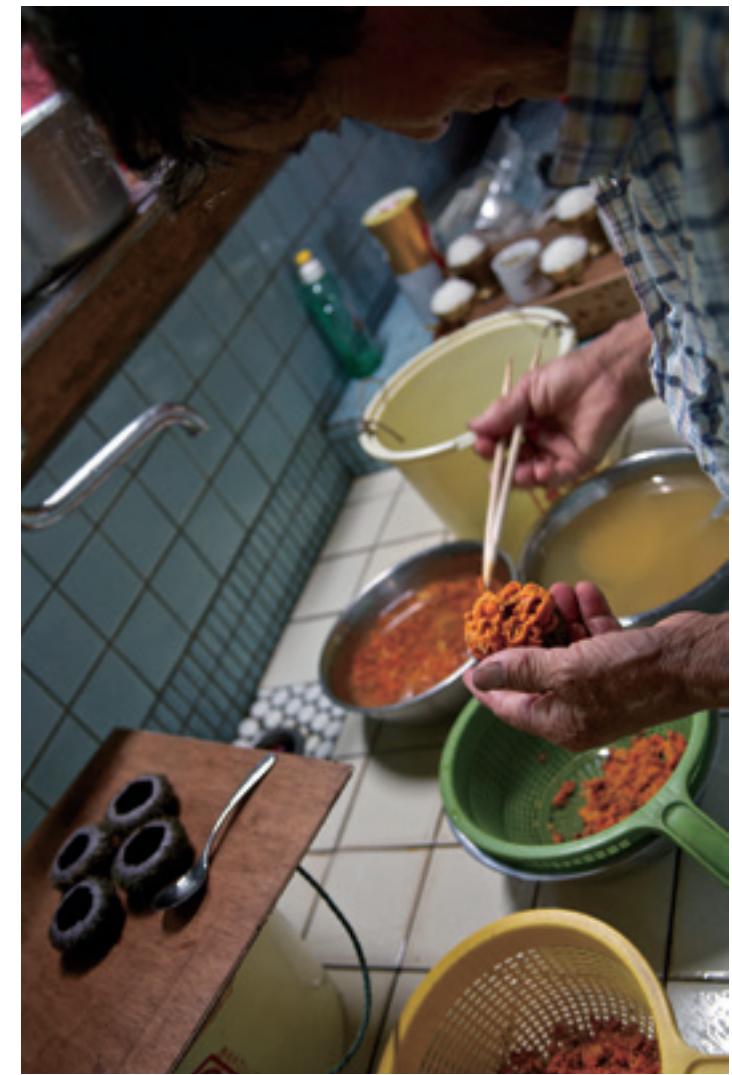
Ama Heading to Market
해녀 어판장으로















海女憩う

Ama Relaxing

해녀 휴식을 취한다



























安乗の海女さん

谷村 志穂

小説家

私が小説の取材をきっかけにはじめて出会った海女さんは、志摩半島の安乗という集落に住んでいる。お祖母さんもお母さんもその集落で海女さんをしてきて、ご自身も、同じ集落の方と結婚、お子さんを産んだあとより本格的に海女さんになったと聞いている。

海女さん方の生き方は、同じ女性として見てもとてもシンプルだと私は思う。目の前に広がる海深くまで潜り、貝を拾う。拾ったお金で、子供にいいランドセルを買ってあげようと思う。海女仲間と楽しい時間を過ごす。家族に病気の人があれば、そちらを優先して過ごす。

都会の暮らしでは、多くの人が企業などへの帰属意識が強く、帰属した先との約束を優先して日々を過ごす。そこから対価も得るが、気づけば心身をすり減らし、家族もなおざりにしている場合もある。

「毎日海に潜っていたら、ストレスなんかないよ」

海女さん方は、穏やかな口調でそう

言う。朗らかな笑顔を見ていると、その言葉をしみじみ実感させられる。

人が働くというのは、企業や団体に属することがすべてではない。女の人は特に、自分や家族の体調に合わせながらできる働き方を、多くの人が模索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海女さん方は代々、ごく自然にそういう働き方をしてきた。集落や家族の中での役割を果たしながら、海女もしてきたように感じる。

とはいえ深い海に潜るのだから、それにはスキルが必要だ。

あるとき、スキユーバーダイビングが好きな人と、一度本物の海女さんが潜る映像を見た。トトカカ船で、旦那さんが船の上にいて船頭をし、海底から合図があると、綱を一気に引き上げる。綱の先には、もちろん見えないとここまで潜っている奥さんがいる。

スキユーバーをしている友人はその映像を見て、とても驚いていた。海女さんが、彼の想像よりずっと深くまで一気に潜っていくからだった。手の先

には、磯のみを握り、重りを背負って潜るので、白い雪の降り注ぐ海に降りてゆく乙姫のように、彼は感じたのだそうだ。

事実、海女さん方が手にする磯のみは、とても大切な道具なのだろう。

「お母さんの形見よ」

そう言って、安乗の海女さんが見せてくれた磯のみは、今も、銀色にきれいに光っていた。女の手から手へと渡ったのみである。何か特別に大切なものに触れさせてもらったように感じられた。

海の底まで潜っていき、海面にあがって呼吸をするときに、海女さんらは、それぞれいそぶえを吹く。海の底では静かに獲物に近づき、貝をおこし、あらゆる危険を身一つで察知して、漁を続ける。こうしたスキルは、おそらくスキユーバーが得意だとする人たちの度肝さえ抜くほどなのだろう。

取材で出会った海女さん方は、ほとんど海を怖いと思ったことがないと言った。小さい頃から貝拾いをして、海で遊んでいたからそうなのか、やはり代々刻まれ続けてきた才能なのか。

私は異能の人たちだと思っている。だからこそ、ずっと残っていてほしい。

代々受け継いだ異能を、かた苦しいことは一つも言わずに伝え続ける人たちである。海辺の暮らし、集落を輝かせている原動力だ。

私自身は取材を通じ、海女見習いの女性を主人公に『いそぶえ』という小説を書いた。ずいぶん長いのに、書いても書いても伝えきれない魅力があった。

Ama of Anori

Shiho Tanimura

Novelist

The first *ama* who I interviewed, as research for a novel, lived in Anori village, Shima Peninsula. I heard that her grandmother and mother also were *ama* in the same village. She married a man from that village. After she had a baby, she became a professional *ama*. I think the *ama* life is very simple from a woman's point of view. Dive in the vast ocean in front of your eyes and catch shellfish. With the money earned, she wants to buy a nice backpack for her child. She spends happy time with *ama* friends. When someone in her family gets sick, she can give priority to her family.

Many people have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pany where they work. They promise to put their company first. Although they receive money from the company, they wear down mentally and physically, and may neglect their own family.

"I have no stress when I dive in the sea everyday," the *ama* tells me with a peaceful tone. When I see her bright smile, I understand what she means.

Working for a company is not the answer for everyone. Many people, especially women, are looking for a work style that can accommodate their family's needs and health conditions. Naturally, *ama* have worked like that for generations. I feel they play appropriate roles among the village and family while working as *ama*. However, they need skill in order to dive deep into the sea.

One day, I watched a film of real diving *ama* with a person who liked SCUBA diving. It was boat style, with husband and wife. The husband was the boatman. When he received the signal from the sea bottom, he pulled the rope up fast. Of course, there was a wife at the end of the rope who was diving where he could not see. My

SCUBA diving friend was very surprised by this image. The *ama* was diving faster and deeper than he expected. He thought the *ama*, with the chisel in her hand and the weight on her back, looked like a princess going down into the sea, like snow falling.

In fact, the chisel that *ama* hold is a very important tool.

"This was my mother's keepsake."

The chisel the *ama* showed me while making this statement was still shiny and silvery. This is the chisel handed down from one woman's hand to another woman's hand. I felt that I touched treasure.

After a dive to the sea bottom, *ama* whistle (*isobue*) at the surface as they exhale and catch their breath. *Ama* approach their prey quietly on the sea bottom and pry up shellfish. They take many dangers with their bodies while they continue to fish. The skill of *ama* surprise even experienced SCUBA divers.

Ama who I met during interviews said they were never scared of the sea. Is it because *ama* are used to playing at the beach, gathering shells since they were children? Or because these skills are in their blood? I think they are exceptionally talented. Therefore, I want them to continue for a long time.

Ama still pass down these exceptional talent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ithout formality. They are the guiding light of the beach; they make their villages shine.

I wrote a novel, *Isobue*, about the life of an apprentice *ama*. Although I wrote about her over and over again, I could never capture her full beauty.

아노리의 해녀

다니무라 시호

소설가

내가 소설을 쓰기 위해 취재를 나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해녀 분은 시마반도의 아노리라는 어촌에 살고 계신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이 어촌에서 해녀를 하고 계셨고, 자신도 이곳 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본격적으로 해녀 일을 하셨다고 한다.

해녀 분들의 삶은 여자인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심풀하다고 생각한다. 눈 앞에 펼쳐지는 바다 깊숙한 곳까지 잠수하여 전복 등을 채취한다. 채취해 얻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사 줘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녀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가족 중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간호하며 지낸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에 귀속되어 있고 귀속 의식도 강하며, 귀속되어 있는 기업과의 약속을 우선하며 나날을 보낸다. 그러므로 대가를 얻게 되지만 알고 보면 어느새 심신이 지쳐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될 때도 있다.

“매일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면 스트레스 같은 거 안 받아” 해녀 분들은 은화한 어조로 그렇게 말한다. 해녀 분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이 말이 진심으로 실감이 난다.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단체에 속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여성들은 특히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상태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직장을 찾으려 생각하지 않을까.

해녀 분들은 대대로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이나 가족 속에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해녀 일을 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다에 잠수하는 이상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어느 날 스쿠버다이빙을 좋아하는 친구와 해녀 분이 실제로 잠수하는 동영상을 봤다. 도토카카후네(물질을 할 때 한 쌍의 부부가 타는 배)로 바다

에 나가 남편은 선상에서 작업을 하는데, 해저로부터 신호가 오면 그물을 단숨에 끌어 올린다. 물론 그 그물 끝에는 바다 깊숙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잠수해 있던 부인이 있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친구가 그 영상을 보고 아주 놀라워했다. 해녀 분이 엄청나게 깊은 곳까지 단숨에 잠수해 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손에는 빗창(전복 등을 채취하는 도구)을 쥐고, 추(무게를 더하기 위한 도구)를 등에 지고 잠수하는 것을 보고, 하얀 눈이 평평 솟아지는 바다에 들어가는 인어공주와 같이 느꼈다고 한다.

사실 해녀 분들이 쓰는 빗창은 매우 소중한 도구일 것이다.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아노리(시마시의 지명)의 해녀님이 보여 주신 빗창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자의 손에서 손으로 물려 내려온 것이다. 뭔가 특별히 소중한 것을 만져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녀들은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해 갔다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숨비소리를 내며 각자의 호흡을 한다. 해저에서는 조용히 어획물에 접근해 전복

등을 바위에서 떼어 내거나 많은 위험을 한몸에 느끼며 작업을 계속한다. 그런 숙련된 기술과 경험은 아마도 스쿠버다이빙을 잘한다는 사람들조차 놀랄 정도라 생각한다.

취재 때 만난 해녀 분들은 거의 바다를 무섭다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조개를 주우며 바다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역시 대대로 이어 내려온 재능일까. 나는 해녀 분들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 나갔으면 한다.

그녀들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특별한 재능을 격식을 따지거나 권위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다. 바닷가의 생활, 어촌계를 빛내는 원동력이다.

나 자신은 취재를 통해 해녀 견습생을 주인공으로 한 「숨비소리」라는 소설을 썼다. 상당히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쓰고 또 써도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